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장성원	소속(학부/과)	기계시스템공학과
파견 학기	2019년1학기		파견 국가	리투아니아
파견 대학	빌니우스 공과대학 (Vilnius Gedimino Techniko Universitetas)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학생활의 꽃! 교환학생, 남들이 가지 않는 도전을 즐겨하는 나라서 평소에 교환학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교내 근로를 국제교류원에서 하게 되어 우리나라로 교환학생을 온 친구들과 안면을 트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나도 교환학생을 가야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기숙사 신청은 리투아니아 시간에 선착순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간 친구들 모두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한 명은 기숙사에 떨어지게 되어서 멘토 집에서 생활하거나 플랫 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달간 살았습니다. 기숙사는 교환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도 운이 좋아야 들어갈 수 있었고, 룸 컨디션은 층과 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살았던 방은 침대에서 벌레가 나오는 등 최악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방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여유가 되자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갔는데 방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짜수 층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고 홀수 층만 리모델링 하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자 관련 서류는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리투아니아 비자 발급 관련 서류' 만 쳐도 관련 서류들이 나오고, 모두 영문명으로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저는 준비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튕겼습니다.

항공권은 '키세스항공' 이라는 곳에서 편도로 구입하였습니다 (35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수강신청은 세 번 정도 하였습니다. 본교에서 갈 때 듣고 싶은 것을 대략적으로 한 번 신청하고, 교환학생을 간 후에 정정기간 중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수업을 들어보고 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뉴스 공대는 시간표가 2주씩 반복되었기 때문에 week1, week2를 잘 보고 시간표를 짜야 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빌뉴스 공과대학은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북유럽과 동유럽 사이에 위치하였고 폴란드, 라트비아 등과 국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엄청 길기로 유명하여 실제로 4월까지 눈이 왔었고, 단 하루도 해가 뜨지 않는 달이 있었을 정도로 겨울에는 우울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주위가 푸릇하게 바뀌고 우리나라의 봄과는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저는 일반물리학2 와 로봇공학, 자동제어, 영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영어수업은 토익 리딩과목을 공부하는 듯한 지문과 내용을 다루었고, 물리학은 실험을 6개 이상 클리어 해야 pass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봇공학과 자동제어는 우리학교의 캡스톤과 같이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구동을 해야 했는데, 같이 했던 조원이 도중에 자국으로 돌아가버리는 바람에 final report에 그대로 적었더니 Fail을 주었습니다.

수강신청은 한국에서 한 번, 리투아니아에서 한 번 ,정정기간에 또 한 번 할 수 있는데 기숙사와 본교와의 거리가 버스로 1시간이어서 효율적으로 시간표를 짜야 했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제가 살던 sauletekio 39A 기숙사는 월150유로였습니다. 보증금 300유로를 우체국에서 냈고, 대부분의 업무는 우체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가가 매우 싸서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많이 듭니다.....

한화로 월 250~300정도 쓰고 왔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VGТУ에는 국제팀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 주 culture evening 이라고 각 나라의 문화를 PPT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학기가 끝날 때 한국팀이 1등을 하여 상품도 상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ESN이라고 교환학생들을 위한 여행(?) 같은 프로그램이 매우 잘 되었는데, 저는 오로라 투어를 신청하여 버스를 52시간정도 타고 핀란드에 가서 오로라를 보고 왔습니다.

그 외에 러시아 투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인접 국가의 여행을 패키지로 다녀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엄청 낡은 헬스장이 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초반에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많이 힘들어 했는데 같이 갔던 다른 학교 한국인들의 추천으로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여 월 14.99 유로를 내고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헬스장 이름으로는 people, lemon집 크게 두 곳이 있는데 레몬집은 백화점이나 큰 센터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10유로 가량 비싸고 피플집은 싼 대신 조금 좁긴한데 그래도 기구들이 너무 좋고 멋진 형아들이 3대 500은 그냥 들어서 자극 많이 되고 가성비 좋게 운동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케이팝 열풍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다들 인식이 매우 좋습니다. 가서 어글리코리안과 같은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다들 너무 호의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즐거운 교환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 사회적 영어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와 같은 분야에 지식이 없어서 구글에 검색하여 아이들에게 설명 해주었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우선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등을 많이 느끼고 보고 즐기고 왔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에 혼자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친구들을 사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